

# 항공

AIR FORCE MONTHLY



1 9 9 9

통권 제247호

공군본부

## C O N T E N T S

|                        |                            |    |
|------------------------|----------------------------|----|
| 새해를 여는 詩               | 새해의 빗장을 풀어헤치고 보니           | 4  |
| 칼럼                     | 21세기 국방과 공군                | 6  |
| 공군은 지금                 |                            | 8  |
| 생각해 봅시다                | '처음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 11 |
| Zoom In                | 하늘의 신호등 항공안전관리단            | 12 |
| I Love Air Force       | 또 하나의 전투 조종사               | 14 |
|                        | 내 마음은 아직도 공군인              | 16 |
| FOCUS                  | 창군 50주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 17 |
| 하늘과 비행                 | 도깨비의 위력                    | 18 |
| 취미의 세계                 | 실내 스포츠의 새로운 강자 라켓볼         | 20 |
| <b>마음따라 가는 길</b>       | 釜山, 문명에 묻혀버린 호국의 성지        | 22 |
| <b>항공기 열전</b>          | 하늘을 지키는 용 A-37B Dragon Fly | 25 |
| <b>문화 마당</b>           | 사물놀이, 신명 속에 하나되는 하늘·땅·사람   | 26 |
| <b>기상전망대</b>           | 시작도 끝도 '좋은 해'의 1월          | 29 |
| <b>마음으로 읽는 글</b>       |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선물             | 30 |
| <b>공군을 본다</b>          |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이모저모            | 32 |
| <b>이달에 만난 사람</b>       | 일격필추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 32 |
| <b>나의 생각·나의 느낌</b>     | 조종사로서 맛본 승리의 기쁨            | 35 |
| <b>이것이 공군 작전</b>       | 근접 항공 지원 작전과 전자전           | 37 |
| <b>Air Power</b>       |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 39 |
| <b>Green Air Force</b> | 환경을 살리는 운전 습관              | 41 |
| <b>Sky Vision 21</b>   | 21세기 정예 공군, 이렇게 육성된다       | 42 |
| <b>이달의 공군 역사</b>       | 1월의 공군 약사                  | 45 |
| <b>나의 유학기</b>          | 대만, 그곳에 순수가 있다             | 46 |
| <b>신간 안내</b>           | 정예 공군이 되자·지식 혁명 보고서        | 48 |
| <b>가지 소식지 No. 1</b>    | 어머니 이마에 새겨진 계급장            | 49 |
| <b>알립니다</b>            |                            | 50 |
| <b>포토 에세이</b>          | 눈내린 방공관제 사이트               | 51 |

###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전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준택

“지난 '98년 한해 동안 부여된 소임 완수와 공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준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충성스런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기묘년 새해에는 복괴의 불예측적인 돌발 가능성에 빈틈없이 대처하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 태세 확립과 실전적 전투 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바라고, 특히 현재 추진중인 '군기강 확립 및 사고 방지 100일 작전'에 전 장병이 적극 동참하여 공군 무사고 원년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하겠 습니다.

아울러, 참모총장 지휘 방침의 적극 실천과 창군 50주년 기념 행사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군상 구현에 더욱 매진하여 주기 바라며, 각급 부대의 무궁한 발전과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공군지휘관회의」 훈시 중에서



# 새해의 빛장을 풀어헤치고 보니

- 기묘년 새해에 부쳐

새해의 빛장을 풀어헤치고 보니  
어느새 세상은 푸른 물결이네.

하늘가에 이렇게 눈부신 것이  
땅 위에 이토록 넉넉한 것이  
둥근 세상을 꿈꾸는 희망인 것이여,  
거기 오래도록 남아 깃을 치거라!

바람이 분다 하여 마음까지 변할까  
하늘 사랑 깊은 것은  
우리들의 오래된 신화인 것이여,  
거기 있거라. 오랜 내 속마음이여!

하늘,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한 벼은 없었다.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썩이는 눈에 속에까지 나의 시작이 있다.

하늘 속에 내가 살고 있었네.  
그땐 좋아하며 자라는 꿈의 푸른 샘물에  
나의 미소가 살고 있었네.

푸른 샘물에 두레박 드리우며  
새해 희망을 퍼올리네, 한해 동안 가득하리라!

# 21세기 국방과 공군

연세대 국제학 대학원장 최 평 길

21세기는 전자정보, 민주화, 세계화의 추세 속에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할 시대로 변모될 것이다.

따라서 군사안보에서 기술경제력 향상이 각국마다 유럽, 북남미, 아세안 권역별로 으뜸되는 국가이익전략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군사안보도 다자간, 양자간 안보협력 강화가 제기될 것이다. 다만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미·러 경쟁축이 무너지는 가운데 세계화 추세 속에서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시와 음악이 흐르고, 꽃향기 가득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전형적인 산업사회의 수준 높은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당면 제일의 과제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국가 존망의 3요소로 일찍이 공자가 병(兵),

족(足), 신(信) 즉, 군사, 경제, 국민 믿음을 말한 것처럼, 군사안보를 국가의 중추로 새삼 인식하면서 경제 회복과 삶의 질 향상, 경제 세계화의 추세 속에 그 의미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 회복 속에 우리 국방도 경제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의 출발점은 작고 강한 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작고 강한 군은 전략면에서 공세형 방어전략에서 위협 발생시 선제기동타격형의 적극 억지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지상군은 병력축소형의 기동 화력군으로 편제하고, 공군은 신예전투기로 무장하고, 해군은 아시아·태평양 제해권을 갖는 국가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수상함, 잠수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될수록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기술 이전이 가능한 무기구매를 기본으로 삼아야 하고,





시장경제의 논리 속에서 적극 군사외교력을 발휘하여 무기구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핵연합세력, 연합핵 억지전략을 구상하는 우리 군의 목소리가 높다. 연합 핵 억지전략은 핵을 가진 국가만이 참여하고 발언권이 있음을 생각해 보라. 동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러·중은 핵보유국, 일본은 수개월 내에 조립가능한 비노출 핵보유국이 아닌가. 핵억제력 없는 한국이 그런 주변 4강에 의지해 안보를 무임승차하려는 시대는 경제의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 끝이 났다. 그 구체적 예가 북한 핵개발 저지책으로 한국이 북한 신포지역에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의 다수를 지불하고 있으며 계속될 북한 미사일 개발, 핵개발, 화학 세균무기 개발 저지에 향후 더 많은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의 경제 세계화 속에 작고 강한 군 패러다임으로 미국과 더욱 전통적인 맹방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외교정책이고 군사독트린일 것이다.

그러나 맹방 속에는 파트너로서 미국이나 일본이 필요로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경제력, 군사력이 밑받침되어야 하고 전략과 정책을 선별하는 선택의 폭, 운신의 폭, 군사외교 유연성이 보다 심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 군 장병의 97%, 우리 공직자 87%, 우리 젊은 대학생의 77%가 과거 역사를 고려하고, 미래 주변 상황을 예단할 때, 핵무기 등 전략 무기의 개발기술 축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무기구입 다변화와 역동적 전략 수립에 8할 이상의 군 장병이 동의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전술 용병(用兵), 무기 개발·구입, 군사외교력, 병참지원 등에서 고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군사정책과 군수, 무기 개발은 국방민간

전략가에게, 군사 용병(用兵)은 전적으로 합참과 각 군에 맡기는 역할 분담으로 전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장관은 경륜 있는 민간 국방전문가로 책임을 맡겨볼 만하다. 그가 국민 앞에 나서서 국방력 강화를 설득하고 실질적인 삼군의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추진한다면 국민도 군도 이를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추세 속에서 21세기의 작고 강한 군의 시발은 공군의 경제적 현대화에서 출발할 것임은 명백하다. ☼



• 1995년, 최평길 교수의 <21세기 한국군 연구> 논문에 발표된 자료



대한민국 공군 50주년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49-1999

# R.O.K.A



공군본부 강영훈 세종재단 이사장(前국무총리)을 초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군의 자세'라는 연제로 특별 경제 강연회 실시(11. 21)



공군지휘관회의 개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와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결의를 다짐(12. 9)



참모총장 '98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Top Gun 성재용(17전비 152대대) 대위에게 메달 수여(12. 8)



참모총장 수도권 신공항 건설공단 방문, 관계관 격려(12. 2)



공군본부 방송작가단 초청 행사 실시(11. 13)

# er Force



계룡대 근무 지원단 발족(12. 1)

공군 군악 정기 연주회 KBS홀에서  
개최(12. 4)

공군본부 사령실 수송대대  
'무사고 300만km 달성'  
기념 행사 개최(11. 17)



공군사관학교  
첫 '자매 보라매' 탄생  
강은미 생도 · 강정미 양  
(1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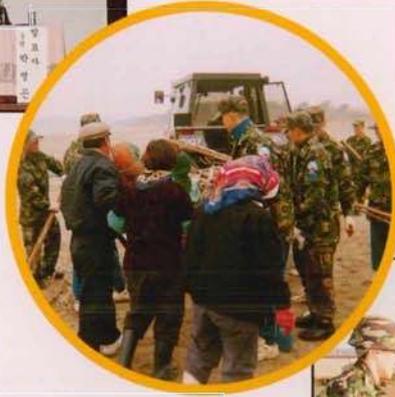


# R.O.K Air Force



건군 제50주년기념  
제4회 교리발전 세미나  
주최: 공군전투발전단

전투발전단 제4회 교리  
발전 세미나 개최(12. 8)



20전비 웅천사격장 주변 해안가  
환경 정화 운동 실시(11. 27)



교육사령부 진주소방서와  
합동 소방 훈련 실시(11. 12)

20전비 항공의무대대, 17전비 및 30단 항공  
비료대대와 함께 격모지 환자 항공 후송  
훈련 실시(11. 20)



# ‘처음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요즘 TV를 보면 ‘처음처럼’이란 문구와 함께 이제 갓 임관하는 경찰관들의 신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그 장면과 ‘처음처럼’이란 문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든 훈련을 마치고 임관을 하면서 또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처음으로 지금의 부대에 배속을 받으면서 우리에게서 무엇보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군인으로서의 자세와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생각과 모습을 하나하나 잊어가고, 또 때로는 그럴듯한 변명으로 지금의 모습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군인이 되어서 생각했던 것과 배웠던 것들은 모두가 쓸데없는 것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군인의 자세와 군인의 생각이 아마도 가장 군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처음의 모습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처음의 모습과 생각으로 지금 일한다면 우리 공군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강한 군인 정신에 바탕한 외적인 모습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누구나 무언가를 계획하고 다짐하곤 합니다. 국가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군도 더욱 튼튼한 영공 방위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거창한 계획이나 대충 살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처음 군인이 되던 날의 모습과 다짐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는 한해를 만들어 봅시다. Ⓡ

**처음의 모습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처음의 모습과 생각으로 지금 일한다면 우리 공군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소위 김도형

## 하늘의 신호등 항공안전관리단



연못에 던진 작은 조약돌처럼 조그마한 파문으로 그 세계를 싸고 있는 거대한 평온함을 깨어버리는 것이 '사고'이다. 사고는 마치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와 같아 그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안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 하늘의 안전, 우리가 지킨다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만 해도 불안한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인가? 항공안전관리단(KARMA)은 인간의 한계 상황과 항공기의 기술적 한계, 다시 말해 동전의 뒷면과 그림자의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연구와 교육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국내 항공 안전의 총아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항공 안전이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요소이지만 항공안전관리단은 조종사와 비행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최적화 안전 관리, 총화적 안전 개념으로 하늘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항공안전관리단의 총화적 안전 개념의 밑바탕에는 휴먼 팩터(Human Factors)를 깔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항공 사고가 인적 요인, 즉 인간 마음 관리(Heartware)에 달려 있으며, 안전에 대한 동기, 의욕, 창의성과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한계와의 명확한 관계 정립으로 사고율 제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항공

안전관리단은 지휘 관리 혁신 및 장병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 안전 교육 CBT 소프트웨어 개발로 항공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항공안전관리단에서 이렇게 항공 안전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안전의 경제학', 즉 항공 사고로 인한 전투력 손실 방지가 새로운 비행기를 생산하거나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란 것이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F-16C 전투기가 사고가 나면 조종사 양성비 96억원, 비행기값 200억원 이외에도 계량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내외 이미지 실추, 인명과 재산 피해 등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 항공안전관리단, 그곳이 알고 싶다

항공안전관리단은 과학적이고 근원적인 항공 안전 연구, 사고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위해 지난 1995년 창설되었다. 항공안전관리단의 창설은 공군 무기 체계의 복잡성과 임무 수행의 전문화, 복합 원인에 의한 사고 발생, 국제 및 국내 민간 항공의 비행 활동 증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공군기뿐만 아니라 타군의 항공기, 국내 민간 항공 사업(KFP/KTX), 해외 직구매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전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공군의 효과적인 위험 관리로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임무 수행의 질적 상승 효과를 도모하는 데 있다.

항공 안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공안전관리단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 안전 관리 기구로 성장·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임무로는 항공 안전 교육, 연구 및 사고 조사가 있다.

항공 안전 교육은 지휘관 교육, 비행 안전 교육, 지상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군사 교육 훈련 체계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안전관리단은 사고를 유발하는 각 요인들의 근원적 한계성을 인지, 극복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종사 의식 상실 및 공간 상황 판단 부족에 의한 사고 방지 교육 시스템 개발

▶비행 착각(Vertigo)에 의한 사고 방지 교육 시스템 개발 ▶조종사 신체 반응 및 적응 교육 시스템 개발 ▶위험 감성 훈련 시스템 개발 ▶비행 자원 관리(CRM/CRLM) 훈련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교육 훈련의 과학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관리단은 총화적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규정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인간·비행기·환경의 유기적인 조합으로 사고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안전 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항공사고조사협회(ISASI), NTSB, FSF(비행안전재단) 및 HUMAN FACTORS 연구소, 한국산업안전협회, 항공우주연구소, 안전문화협회, 한국능률협회 등의 국내



의 안전 관련 기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사고율 제로의 '新 안전 문화'를 꿈꾸며

항공 안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공안전관리단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 안전 관리 기구로 성장·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늘을 먼저 지배하지 않고 적을 정복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다.”는 군사 전문가 세바스키(Alexand Serversky)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항공안전관리단은 항공 지배력과 하늘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사고율 제로의 '新 안전 문화'로 안전의 경계를 구현하고 안전을 미덕으로 공군의 활약상이 하늘에 새겨질 그날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

글·사진/교육사령부 정훈공보실 중위 김 응 만

## 또 하나의 전투 조종사

17전비 소령 이영배의 부인 정성봉



### 조종사 아내의 하루 점검표

어느 날 남편은 퇴근길에 노랗게 코팅된 프린트물을 갖고 들어왔다. “그게 뭐예요?” 하고 묻자 내게 내민 것은 ‘조종사 아내의 하루 점검표’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소 반감과 괴리감이 느껴져 “완전히 수행 비서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쓰여진 11가지 항목 중 몇 가지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내일 남편의 비행 유무를 아는가?’,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했는가?’ 하는 것들은 내가 늘 신경쓰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평소와는 다른 언행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부대 일이나 집안 일, 개인 일로 고민하지는 않았는가?’, ‘건강상 이유로 군의관의 처방이 없는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남편의 피로 회복과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라서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투 조종사의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지도 벌써 햇수로 7년, 일반 사회 가장으로 본다면 중견

간부가 되었으리라. 그 동안 나는 군대 문화가 물씬 풍기는 남편의 생활 방식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고 있다. 새벽같이 힘든 몸으로 일어나지만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 아파트 문을 나서기 위해 군화를 신고 있을 때 주섬주섬 옷가지와 가방을 정리하여 남편에게 전해주면서 가벼운 입맞춤으로 “오늘도 잘하고 오세요.” 하면서 가벼운 포옹으로 남편을 안정(?)시켜 준다. 남편과 하루 종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걷는 그이를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 남편은 하늘을 지키는 ‘독수리 형제’

일간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간혹 비행장의 전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때문에 주변 축산 농민들이 하소연 섞인 불평을 털어놓는 것을 보곤 한다. 그러나 나는 조종사의 아내로서 전투기의 “쿵우웅!” 하는 폭음 소리는 귀에 익숙

한 하나의 격렬한 Hard Rock 음악 소리에 비유하고 싶다. 관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오히려 비행기 소리가 들려야 더욱더 잠을 잘 잔다고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는 말하곤 한다. 기상은 좋는데 비행기 소리가 나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으로 가슴을 조이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비행대에 전화로 아무 일이 없음을 기어이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마음을 놓는 관사 아주머니도 있다.

매일 하루에 한두 번 비행을 하는 남편은 항상 얼굴에 짙힌 선명한 산소 마스크 자국을 하고 웃는 얼굴로 아파트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이의 군인다운 당당한 모습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독수리 형제’로 느껴진다.

“여보, 나야. 오늘 뭐 특기 사항 있었어?” 하는 물음에 맞장구를 치며,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하며 따뜻한 포옹과 입맞춤으로 그이를 맞이한다. 특히 야간 비행을 하고 돌아온 그이를 보면 피곤한 기색은

평소에 나는 길을 가다가도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혹시나 내 남편이 조종하고 있는 비행기가 아닌가 하고...

역력해 보인다. 시장이 반찬인지라  
 저녁 식사를 번개같이 먹어치우고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게 되는데,  
 어느 새 단잠에 빠져드는 그이의  
 산소 마스크 자국이 선명한 모습은  
 참 안쓰럽게 보이기도 한다.

### 조종사 아내는 '또 하나의 전투 조종사'

평소에 나는 길을 가다가도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혹시나 내 남편이 조종하고 있는 비행기가 아닌가 하고... 전투 조종사인 남편이 하늘을 지키고 있기에 아내인 나는 저 하늘을 감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지금 식탁 위에 붙어 있는 '조종사 아내의 하루 점검표'를 바라보며 출근한 남편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항목을 혼잣말처럼 읽어본다. "오늘도 남편이 영공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고의 내조를 하고 있는가?"

'98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남편이 근무하는 대대가 영예의 종합 우승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들



었다. 아내로서의 세심한 내조가 남편의 사기 앙양과 비행 안전에 일조할 것이며, 이는 곧 비행대대의 전투력 증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옛 고사성어가 말해주듯 우리 관사 가족 모두는 소중한 가정과 비행 안전을 위해 2선에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또 하나의 전투 조종사'라고 자칭하고 싶다. Ⓢ

# 내 마음은 아직도 공군인

CBS 기자·사후 91기 김기종

기왕이면 동원 훈련 들어가서 2박 중 1박은 사후 훈련소에서 보냈으면 싶다.  
또 만나질 정도는 전술 학과장에서 야외 훈련을 받고 싶다.

사회에 나와  
군대 시절을  
되새기다 보  
면 그때를 좋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군 시절을  
좋게 기억하는 쪽이다. 공군 장교  
를 지원해서 뜻을 이뤘고, '정훈'  
이 되고 싶었는데 정훈이 됐고, 공  
군본부를 원해서 또 그렇게 됐다.  
지금도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군 시절처럼 원하는 대로 잘 맞아  
떨어진 적이 내 기억에는 거의 없  
다. 군 시절에 결혼까지 했으니 내  
가 어떻게 공군을 좋지 않게 기억  
할 수 있겠는가.

## 피를 부려서라도 보고 싶었던 '깔딱고개'

공군 시절을 얘기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원 훈련이다. 1년  
에 한 번씩 나를 '공군 시절'로 되  
돌려 주니 말이다. 작년 9월말 2박  
3일 동안을 교육사에서 보냈다.



이번 동원  
훈련에서 나  
는 후보생 훈  
련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께  
를 부렸다. 둘째날,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나오  
라고 하기에 아프지도 않은데 부대  
차를 타고 항의전대에 갔다. 예비  
단을 빠져나온 차가 고갯길을 올랐  
다. 이른바 '깔딱고개'다. 후보생  
훈련 시절 매주 기지 구보를 했는  
데 반환점을 돌아 한참을 올라야  
하는 이곳에서 낙오자가 많이 나왔  
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다. 5년  
전 숨가쁘게 그 길을 올랐던 사람  
들 중에 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꿔'를 부려서라도 이 길을 보고  
싶었다.

## 내 마음은 아직도 '공군인'

작년과 달리 올해 훈련 일정에는  
기지 행군이 들어 있었다. 기지를  
한 바퀴 돌아 사격장까지 가는 이  
훈련 시간을 나는 기다렸다. 하지

만 비 때문에 기지 행군은 취소됐  
고 실내 교육으로 대체되었다.

정말 1년에 한 번 이곳에 와서 강  
당에만 앉아 있다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기왕이면 동원 훈련 들어  
가서 2박 중 1박은 사후 훈련소에  
서 보냈으면 싶다. 또 만나질 정도  
는 전술 학과장에서 야외 훈련을  
받고 싶다. '곰발바닥' 같이 5년 전  
우리를 가르친 교관들이 만약 수업  
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  
옛날로 돌아가 공군을 사랑하는 마  
음을 북돋워 주는 데에는 최고일  
테니까. 이걸 또 얼마나 큰 정신 교  
육 효과를 거두는 것인가. 이러저  
런 생각을 하면서도 공군 사랑과  
정신 교육 효과를 말하는 걸 보니  
내 마음 한구석은 아직도 '공군인'  
인가 보다. ☺

# 창군 50주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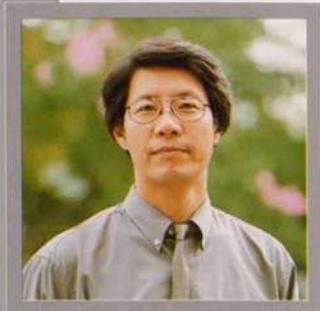
## 강한 공군 이미지와 통일 염원 담아

공군 창군 50주년 기념 엠블럼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50이라는 숫자는 창군 50주년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공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며, 두 숫자의 조합은 인화 단결을 의미한다. 태극 마크는 우리 나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을 기본으로 조국 영공을 수호하는 강한 공군의 이미지와 조국 통일의 염원을 상징한다. 전투기는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공군의 상징으로 세계화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을 의미하며, 푸른 색상은 창공과 함께 미래 지향적이고 힘찬 기상과 패기와 정열이 넘치는 강한 정예 공군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군 창군 50주년 엠블럼은 50주년을 경축하고, 미래를 향한 공군의 진취적인 기상과 힘찬 도약을 국민에게 상징적으로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창군 50주년 관련 행사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 공군인의 자긍심을 키우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④

편집실

우리 공군의 창군 제50주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이고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엠블럼이 제작되었다. 창군 50주년 기념 엠블럼은 현재 홍익대학교 조형대학에 재직중인 박순보(朴淳保·45세) 교수가 제작하였는데, 박교수는 홍익대와 동 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한 후 독일 부퍼탈대학교에서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디자인학회 이사과 홍익그래픽디자인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시각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구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 도깨비의 위력

공군사관학교 교수 이 영 순

나는 1998년 3월 31일부로 총 비행 시간 4,341시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비행 생활을 한 기간은 1970년 6월부터 1998년까지 만 28년간이며, 약 6개월간 순수하게 하늘에 떠 있었던 셈이다.

내가 직접 조종한 12개 비행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행을 한 기종은 F-4D(팬텀)기로서 2,087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나는 항상 나 자신을 '팬텀 조종사' 라고 여기고 있다.

나와 팬텀기는 조종사가 되기 전 생도 시절부터 인연을 가지고 있다. 생도 3학년 시절(1969년)에 공사 문에



'98.5 마지막 팬텀 비행 후 기념 촬영

작품 발표회(양가주망 작품 전시회)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예총화랑에서 가졌는데, 그때 나의 시 3편이 입선되어 전시되었다. 그중에 '팬텀'이란 제목의 시가 항상 기억에 남아 있으며, 표구도 잘 되었지만 숙대에 다니는 미술과 학생이 모자이크식으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 해바라기는 바로 조종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해바라기는 늘 태양을 지향하는데 그것은 마치 조종사가 공중전에서 태양을 이용하여 적기를 공격하고, 또 위치가 불리할 때는 태양을 향해 회피 기동을 함으로써 강렬한 태양 광선에 눈이 부시어 추적이 시야에 들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군 역사상 F-4D가 최초로 도입되면서부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팬텀 보유국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팬텀기는 공군 현대화에 눈부신 발전의 전환기를 이룬 견인차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대북한 공군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고자 맹훈련으로 대처하기만 했던 지난 시절 팬텀기의 우수한 화력은 우리 조종사들의 사기

대북한 공군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고자 맹훈련으로 대처하기만 했던 지난 시절 팬텀기의 우수한 화력은 우리 조종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고 북한 조종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를 높여주었고 북한 조종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실례로 1975년 2월 서해 상공에서 미그기와 우리 전투기간에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이틀간이나 공중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로 고속으로 정면 접근시, 팬텀기가 가지고 있는 전(全)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스펠로우' 공대공 미사일 사정 거리 이전에서 급강하 회피 기동으로 도망을 가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독도 초계비행중인 F-4D전투기

팬텀(Phantom)이란 '유령, 환상' 같은 뜻으로 표현되나 여기서는 무시무시한 '도깨비'를 의미한다. 미국에서 팬텀기 제작에 착수할 때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석학들이 모여

F-4 항공기를 만들어놓고 보니, 지금까지의 날씬한 비행기 모습보다는 약간 괴물스러운 모양이라 도깨비란 별명이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현역 시절 비행단에 견학은 이들에게 비상 대기실에서 영분 대기(零分待機)에 관한 설명을 하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경험했다. 여기에서 영분 대기란 전투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는 것을 초계 비행(哨戒飛行 : Combat Air Patrol)이라고 하는데, 이 초계 비행은 적 항공기가 그들의 목표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여 격추시킬 목적으로 공중에서 대기하는 임무이다. 우리 나라의 수도권이 중심이 짧은 관계로 취약 시간대나 취약 지역 혹은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을 때, 우리 조종사들은 항상 주어진 지역 상공에서 초계 비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팬텀기는 명실공히 전천후 전폭기이므로 24시간 비상 대기를 하고 있다. 우리 영공은 물론이며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까지 공중에 이상한 항적이 포착되면 밤낮이나 눈, 비를 가리지 않고 어떤 기상 상태에서도 비상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는 팬텀 비행 시간만 2천여 시간, 그리고 비행 시간보다 몇 배나 넘는 비상 대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내 삶이 그냥 비행기와 함께 살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다. ✚

〈하늘이 받아 준 사람〉 중에서

실내 스포츠의 새로운 강자

# 라켓볼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체육처 중위 안 창 영

운동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행하는 목적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인들에게 어떤 스포츠를 가장 즐겨하는지를 물어본다면 대개는 축구, 농구, 야구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이외에 좀더 발전된 형태의 스포츠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레저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라켓볼이다.

## 역사는 짧지만 동호인 수는 3만여 명

라켓볼은 미국 미시간대학의 패들볼(Paddleball)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1930년대 패들볼 발전에 이바지한 Earl Risky는 겨울철 테니스 선수들이 핸드볼 코트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착안하여 라켓볼의 개념을 창시하였다. 이후 YMCA 등에서 대중형 스포츠 종목으로 경기를 보급하였으며, 미국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조종사의 체력 단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라켓볼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1968년에는 국제 라켓볼 연맹이 결성되어 라켓볼이라는 공식 명칭을 처음으로 공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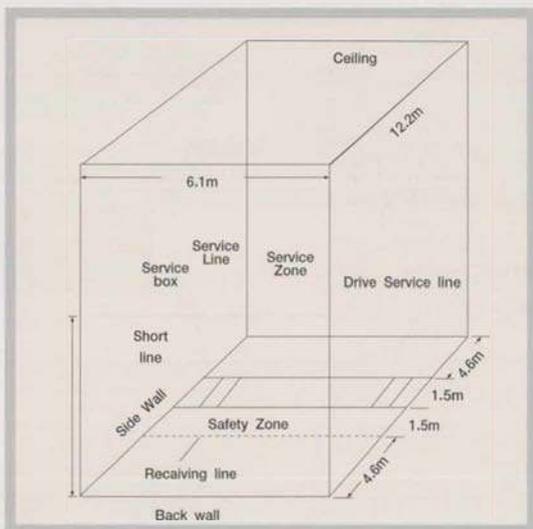
라켓볼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지는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렇듯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라켓볼 동호인 수는 약 3만여 명에 달하며 저마다 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한국라켓볼



협회를 주축으로 매년 크고 작은 대회가 수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인구가 라켓볼에 심취하는 이유는 다른 운동 종목과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 박진감 넘치는 전천후 레저 스포츠

라켓볼은 다른 실내 종목과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전천후 레저 스포츠로서, 선수들의 서비스 속도가 시속 약 250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동작마다 박진감이 넘친다. 또한 경기의 규칙이 다른 라켓 스포츠와 여러 가지로



다른 라켓 스포츠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이 많고 복잡하지  
않아 남녀노소가 쉽  
게 접할 수 있으며,  
경기가 유·무산소성  
의 복합적 운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균형있  
는 근육 발달을 꾀할  
수 있다.

유사한 점이 많고 복잡하지 않아 남녀노소가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경기가 유·무산소성의 복합적 운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균형있는 근육 발달을 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 효과(시간당 800Kcal 이상 소모)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켓볼은 너비 20피트(6.1m), 길이 40피트(12.2m), 높이 20피트(6.1m), 후면 높이가 최소 12피트(3.7m)의 직육면체 코트에서 모든 벽면을 이용하여 랠리가 진행되는 경기로, 2인이 하는 단식과 3인이 하는 컷스로트(Cut-throat), 4인이 하는 복식 경기로 나누어진다. 단식 경기인 경우에는 2명이 랠리를 거듭하여 승부를 내고, 복식은 2인이 한 팀이 되어 2대2 경기를 펼친다. 3인 경기는 다른 운동 종목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3인의 선수가 각각 포인트를 얻어 승부를 내며, 3명중 1명이 서버인 경우 나머지 2명은 한 팀이 되어 수비를 하게 된다. 이 게임은 사이드 아웃이 될 때마다 리시버의 파트너가 교체되고 3명 중 15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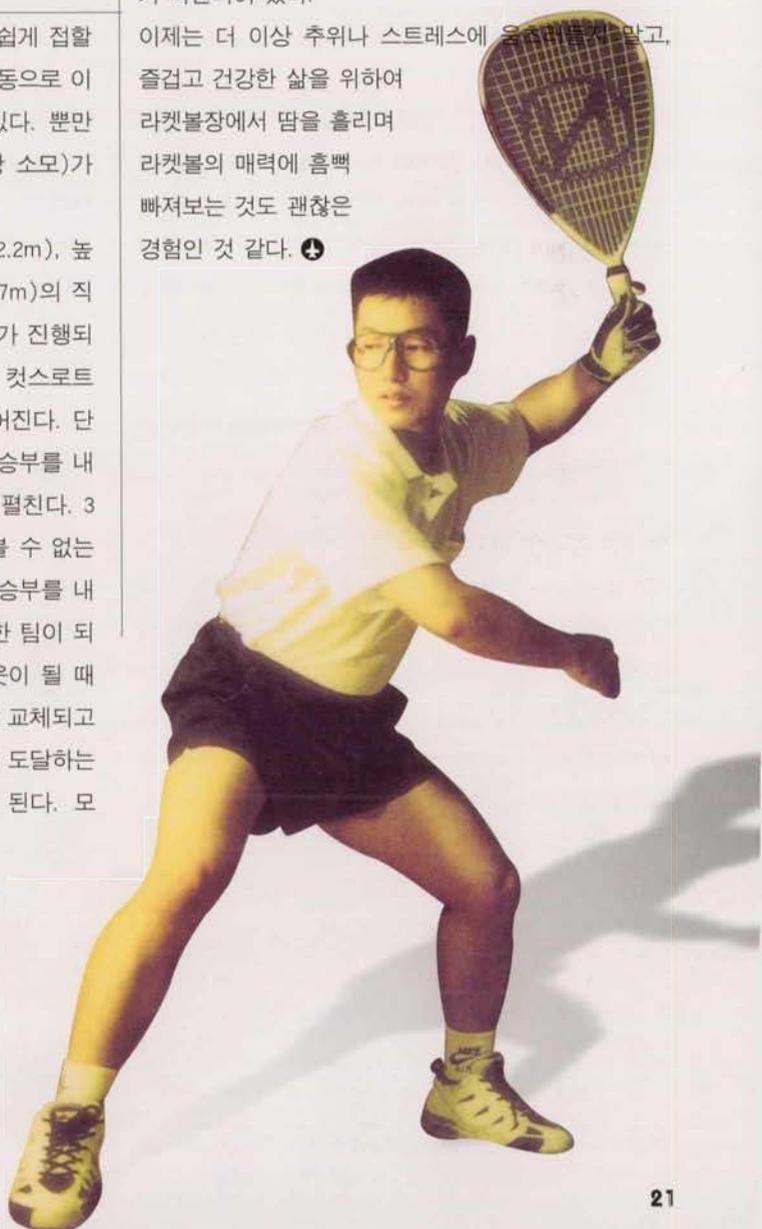


든 경기는 코트 내 모든 벽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이 한 번 바운드 된 후 받아치거나 노바운드 상태에서 샷을 하면 되고, 실패할 경우 서브권을 획득하거나 포인트를 얻게 된다.

### 겨울철에 더욱 각광받는 라켓볼의 매력

바야흐로 겨울철 실내 스포츠가 각광을 받는 시즌이 되었다. 현재 전국에 걸쳐 약 30여 곳의 라켓볼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공군의 전략 스포츠로서 각 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에 라켓볼 경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위나 스트레스에 움츠러들지 말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라켓볼장에서 땀을 흘리며 라켓볼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인 것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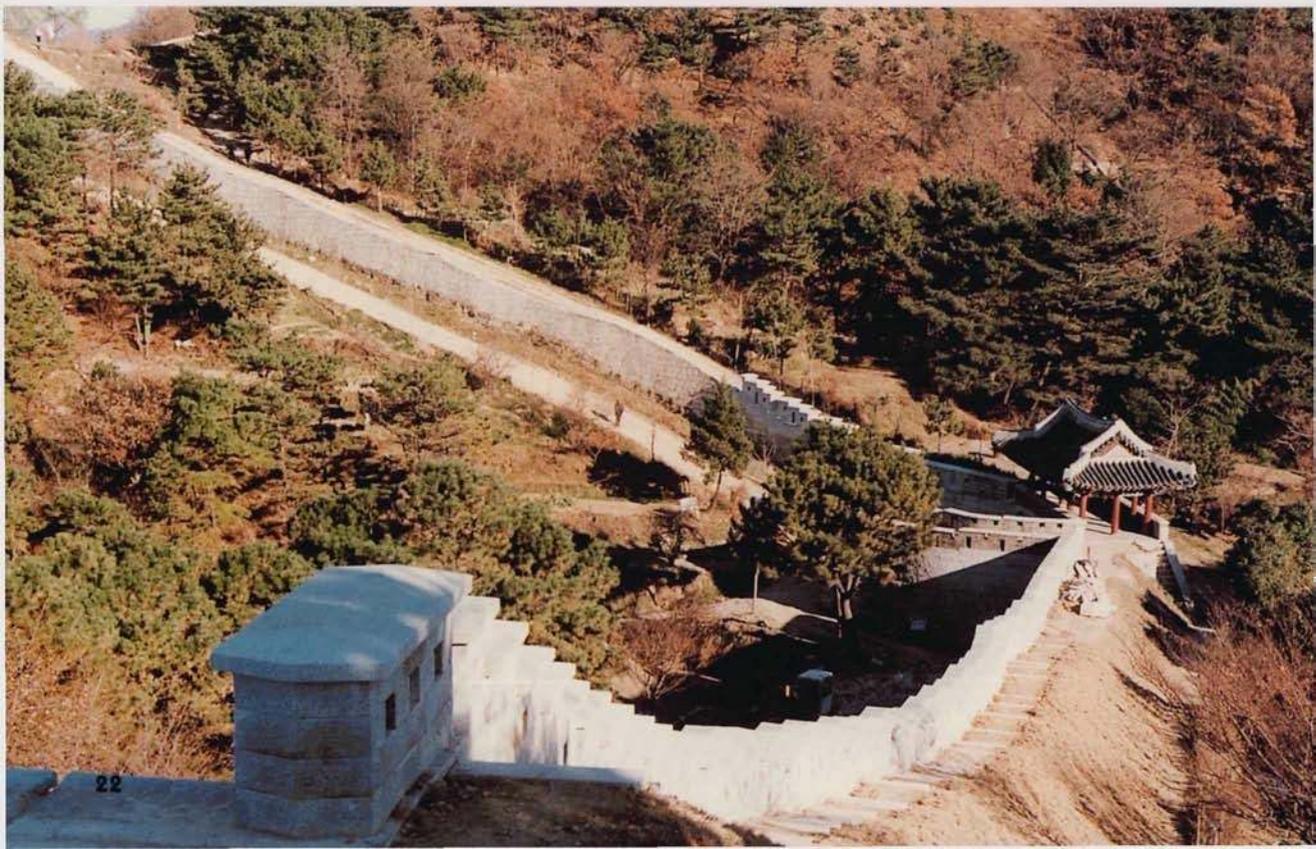
# 釜山

## 문명에 묻혀버린 호국의 성지

항도 부산은 우리 나라 제2의 도시이자 국제 무역항으로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시이다. 바닷가를 끼고 발달한 부산은 내외항의 수심이 깊어 커다란 무역선이 접안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부산항과 바로 인접해 있는 부산역을 통해서 무역선이 싣고 온 서구의 문물을 곧장 서울 또는 전국으로 보낼 수 있었다.

지금도 부산은 우리 나라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선적하는 수출의 전진 기지로서 24시간을 잠시도 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섬나라 일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아야만 했던 역사의 아픔도 간직하고 있다.

복원 작업중인 동래읍성 복원



## 역사의 영육이 되풀이된 도시

〈삼국사기〉에 보면 부산에는 거칠산국(居漆山國)이 원시 국가로 존재했었다고 한다. 부산 시내에 우뚝 솟아 있는 황령산(荒嶺山) 일대의 부족 국가였던 것이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동래부사가 다스리던 부산포의 작은 어촌이었다고 한다. 부산이 일찍부터 발달할 수 없었던 것은 끊임없는 왜구의 침략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어 머물러 살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부산은 대일 외교의 전초 기지이며 국방 도시로서 차차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다가 1929년 진주에 있던 경상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된 후부터 부산은 급격한 팽창을 보이게 되었고, 6·25 당시에는 임시 수도로서 국난을 극복했던 민족사의 애처로운 현상이 되기도 하였다.



금정산성 올라가는 길



북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 (4-5C경 작품으로 추정)

## 적장마저 감동시킨 송상현의 충절

부산포에는 두 개의 성과 한 개의 외성(外城)이 있었다. 부산진성(釜山鎭城)과 동래읍성(東來邑城) 그리고 부산성의 외성이 그것으로, 외성은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이라고도 한다. 선조 33년인 1590년 3월 도요토미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에 다녀온 황윤길, 김성일 두 사신은 임금에게 각각 다른 보고를 하게 되며, 조정은 침략 의도가 없다는 김성일의 말을 믿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를 하지 않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

1592년 4월 14일, 일본은 조총으로 무장한 육군 15만여 명과 수군 9천여 명을 이끌고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다. 부산진성의 첨사(僉使) 정발(鄭撥)은 수평선에 새까맣게 떠 있는 왜선을 보고 깜짝 놀라 수비를 강화하고 항전하였으나 처음 보는 최신 무기인 조총에 맞아 숨지게 되었고, 정발이 숨지자 부산진성은 곧 항복하고 말았다. 부산진성을 함락한 왜군은 동래성으로 치달았다. 명나라를 치러 간다는 구실로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하는 왜장에게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은 “죽기는 쉽다. 그러나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며 끝까지 싸울 것을 결심하고 부하들을 독려하였다. 목숨을 나라에 바쳤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버티자고 외치던 송상현의 충성과 용맹도 적의 최선 무기인 조총 앞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다.

동래성의 군·관·민이 힘을 합쳐 왜적과 싸우다 거의 전멸하고 성이 함락되자 송상현은 갑옷 위에 조복(弔服)을 입고 문루에 올라가 선조 임금이 계시는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고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금정산성에서 내려다본 수영만. 당시 수영만을 통해 침입해온 왜구를 잘 관찰할 수 있었다.

성을 밝히는 저 달빛  
 다른 진들은 걱정도 없는 듯 잠들었구나  
 임금과 신하의 의는 무거우나  
 어버이에 대한 자식의 은혜는 가볍다

이렇듯 효보다 충을 중하게 여겼던 송상현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적장의 제의를 거절하고 죽음을 택하였다. 적장은 그의 충절을 장하게 여겨 그의 시체를 관 속에 넣고 동문 밖에 무덤을 만들고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다. 송상현의 충절은 누구에게나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귀감이 되겠지만, 특히나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은 군인으로서 절대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국가관이 아닐까 한다.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장

동래읍성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동래구 안락동과 복천동, 수안동이 자리하여 읍성은 겨우 그 형태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에서는 동래읍성의 복원에 노력하여 현재 여장(女牆: 성벽 위에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 복원 공사와 성벽 보수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이 일대에서 가야 시대의 고분군이 출토되었는데, 부산

시에서는 1996년 10월 5일 시립박물관 복천분소를 토성 바로 아래에 개관하여 고분 출토품과 토기, 장신구, 철기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복천동 고분군이 수차례의 발굴을 끝내고 관람객을 맞을 수 있도록 단장되어 있다.

이제, 이 산성이나 읍성 등 과거 외침을 막기 위해 세워졌던 방어 요새는 도시의 급격한 발달과 팽창으로 어찌면 도시 개발의 귀찮은 존재이며 장애 요인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또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인들의 관심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를 조성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군락의 그림자에 가리워져 역사의 뒷안길에 묻혀버리는 안타까움이 크지만, 다행히 우리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요즘 새롭게 인식되는 역사 의식 속에서 복원과 보존을 통하여 옛 모습을 그나마 다시 찾고, 시대를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장으로 우리 가슴 속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뻑뻑이 들어찬 아파트 군락의 틈새로 새롭게 단장되는 성벽과 여장들이 현대와 조화를 이루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기다려본다. ⊕

글·사진 / 중령 김홍식

## 하늘을 지키는 용

# A-37B Dragon Fly

A-37B Dragon Fly기는 지난 1955년 미국 Cessna사에 의해 T-37 훈련기로 처음 탄생하였다. 그후 반란이나 폭동 진압을 포함한 국지전 대비 공격 및 정찰기로 개발되었다. 기본형은 1963년 첫비행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 이후 실전 배치되기에 이르렀다.

### 저속 및 선회 성능 탁월한 공격기

A-37B Dragon Fly기를 보면 먼저 동체 크기에 비해 주날개가 크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속 특성 및 선회 성능이 탁월하며, 개량된 F-5 엔진을 탑재하여 공격기 최대 목적인 충분한 무장 탑재가 가능하다. 또한 한 개의 엔진으로 어떠한 무장에서도 비행 가능하게 제작되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 월남전에서 다양한 임무 수행한 베테랑

1955년 제트 훈련기 T-37로 첫 비행을 가진 후 1963년에는 최초 개발 임무용 원형 시험기인 YAT-37가 개발되었으며, 임무형 A-37A가 1966년에 미공군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후 1967년부터는 복좌 경공격 항공기 A-37B 모델이 생산 개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미공군은 1967년에 A-37A 25대를 월남전에 최초로 참전시켰으며, 근접 항공 지원과 헬기 엄호, 무장 정찰, 전방 항공 통제, 야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미국 내에서 2,000여 대가 실전 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000년대 초까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④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 주요 성능 및 제원

최대/순항속도 : 415/250노트(768/463킬로미터/시간) 최대/실용상승고도 : 40,000/23,000피트(12,200/7,000미터) 전투행동반경 : 200마일(370킬로미터) 최대항속거리 : 650마일(1,200킬로미터) 최대이륙중량 : 14,000파운드(6,400킬로그램) 엔진추력 : 2,850파운드×2 최대상승률 : 6,990피트/분(2,130미터/분)

하  
늘  
의  
용  
기



## 사물놀이, 신명 속에 하나되는 하늘 · 땅 · 사람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감독 김 덕 수

우리는 사물놀이라는 말을 마치 한국의 전통 예술 중에서 쟁과리, 징, 장고, 북을 가지고 뭔가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어떠한 장르를 일컫는 보통명사로 쓰고 있지만, 사실 사물놀이는 1978년에 생긴 한국전통 타악연주단체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붙인 단체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보통명사'가 아닌 '고유명사'가 되었다.

### 쟁과리 · 징 · 장고 · 북의 두들소리패

사물놀이의 탄생을 살펴보면, 고조선 시대의 제천 의식에는 반드시 음주가무(飲酒歌舞)가 따랐으며 놀이와 음악이 빠질 수 없었다. 이러한 모습을 상형 문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巫(무)' 자인데 이 글자의 윗부분을 가로지른 획은 하늘을 상징하고, 아랫부분의 가로지른 획은



사물놀이에 열연중인 김덕수씨

패' 등의 그것으로 크게 나뉘게 된다. '마을 풍물굿'은 우리가 흔히 농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서, 앞서 말한 굿의 전통이 가장 잘 살아 있는 형태로 최근까지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의 삶과 함께해 왔던 우리의 두들소리는 일제 35년간의 강점 기간 동안과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그리고 그 이후 우리 민족이 거쳤던 서구화, 근대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는 점점 유리되어 갔다.

'78년 2월에 과거 전문 예인 유랑집단으로서 이름을 날리던 남사당에서 최고의 예기(藝技)를 익히며 잔뼈가 굵은 20대의 젊은이들이 뜻을 모아 '우리 풍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팽과리, 징, 장고, 북의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두들소리패'라는 뜻의 '사물놀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 가락 속에 잠재된 음양 원리와 자연의 이치

이른바 사물놀이라고 하면 좀 아시는 분들은 '비나리', '삼도 설장고 가락', '삼도 농악(풍물굿) 가락' 그리고 '판굿' 등의 레퍼토리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사물놀이가 내 보이는 모습의 모두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위의 네 가지 곡목(?)이 오늘의 사물놀이를 있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기는 하지만, 과거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을 오늘날 사는 우리의 정서와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였던 사물놀이의 예인(藝人) 정신은 여기서 결코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적인 실험이나 다른 예술 분야와의 만남, 그리고 예술적 자기 발견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오로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소박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비나리'는 사물의 가락 위에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를 얹어 부르는 것인데 한마디로 제의성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비나리는 사물놀이의 공연에서 맨 앞

땅을 상징한다. 그리고 하늘(天)과 땅(地)의 사이에는 사람들(人+人)이 있어서 이 天·地·인이 하나로 잘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제사와 축제를 벌이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을 우리말로로는 '굿'이라고 한다. 이때 이러한 대동(大同)의 굿판에서 우리 조상님들께서 누리셨을 음악의 모습은 당연히 '두들소리', 즉 타악(打樂)이 그 시초이며 기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무언가를 두드려서 무리를 하나되게 하고 그 하나된 무리의 힘을 모아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일은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싹튼 것이며 이것이 곧 사물놀이의 기원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두들소리'의 모습과 방식 또한 '마을 풍물굿'과 '무굿' 그리고 '전문 연회

에 놓여진다. 비나리로서 공연의 문을 열어 관객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질 듯한 몸짓으로 온몸과 마음을 내던진다. 자기가 치고 있는 가락에 얹힌 발 딛음과 상모의 사위가 하

나가 되어서 다른 잦이의 그것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레야만 보고 듣는 이와 더욱 크게 하나가 되어 天·地·人 모두를 아우를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사물놀이의 백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삼도 설장고 가락'은 과거 경기·충청도와 호남 그리고 영남 지방의 삼도(三道)에서 명성을 날리던 장고 명인들의 가락을 모아 사물놀이가 정리해 놓은 것이다. '삼도 농악 가락' 역시 삼도의 대표적인 풍물굿 가락을 모아 앉은 반의 형태로 연주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물놀이' 하면 떠올리는 사물놀이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삼도 설장고 가락이 장고를 통해서 연주자의 기량과 음악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삼도 농악 가락은 팽과리, 징, 장고, 북의 사물을 가지고 우리의 가락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음양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수많은 세월을 통해 학습하고 다져온 깊고 넓은 호흡으로 동그랗게 떠올려 감고 감아가며 쌓아서 혹은 오므리고 혹은 부풀리며 한데 어우러진다.

비나리가 제의성이 강하고 삼도 설장고 가락과 삼도 농악 가락이 음악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판굿은 한마디로 놀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판굿에서 사물잡이들은 머리에는 상모를 쓰고 사물을 손에 들거나 몸에 매거나 하여 발로는 땅을 딛어 박차고 머리로는 하늘을 휘젓고 손으로는 사물을 울려 듣는 이의 몸과 마음을 뒤흔들어 이 모두를 하나로 아우른다. 그것을 위해 사물잡이들은 마치 무당이 작두를 타듯 끝없는 신명과 터

나가 되어서 다른 잦이의 그것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레야만 보고 듣는 이와 더욱 크게 하나가 되어 天·地·人 모두를 아우를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사물놀이의 백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 사물놀이의 끝없는 실험과 창조적 만남

이상의 네 가지가 이른바 사물놀이의 대표적인 고정 레퍼토리이다. 그러나 사물놀이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서 말한 대로 다른 공연 예술의 갈래와의 실험적, 창조적 만남이나 무속의 사물놀이화 등의 시도를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만 나열을 해보면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 관현악- '신모듬'』 『사물놀이와 피아노의 만남- '열두거리'』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의 만남- '푸리' 나 '마당'』 등과 사물놀이 초창기부터 시도되어 온 강태환 Jazz 그룹이나 Rock 그룹과의 만남 그리고 이애주 교수의 창작 춤인 '바람맞이' 부터 승무, 살풀이, 태평무, 진쇠춤 등에 이르는 전통 무용과 심지어는 Jazz Ballet의 음악 등 사물놀이가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찾기 위해 시도한 실험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만남과 모색은 실로 다양하다는 표현을 넘어설 정도이다. Ⓛ



## 시작도 끝도 ‘좋은 해’의 1월

어린 시절에는 눈만 뜨면 밖으로 뛰어나갔다. 자치기, 딱지치기, 썰매타기, 연날리기, 흙 파서 미꾸라지 잡기, 지붕 처마 뒤져서 참새 잡기... 출출해지면 고구마를 구워먹어 가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신나게 놀았다. 덕분에 애꿎은 귀와 손은 겨울 내내 동상으로 얼곤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립고 소중한 1월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왔다가...

1월의 절기로는 6일의 소한(小寒)과 20일의 대한(大寒)이 있다. 중국에서는 소한을 ‘작은 추위’, 대한을 ‘혹한의 추위’라고 하고, 또 이름만 봐도 대한이 더 추워야 할 것 같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소한 때가 더 춥다. 오죽하면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죽었다.’라는 속담이 생겼겠는가. 예전에는 이때 내의원에서 정신에 좋다는 청심환(淸心丸), 열이 날 때 쓰는 안신환(安神丸), 체했을 때 좋은 소합환(蘇合丸)을 만들어 임금께 올렸다고 <동국세시기>는 전한다.

### 한파·건조에 각별한 관심 기울여야

1월은 대륙성 고기압의 세력이 최고로 강해지는 시기로 1년중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달이다. 강설 일수는 4~10일 정도로 눈이 가장 많고 강수량은 평균 20~60mm를 보인다. 강력한 고기압이 창출할 때 발생하는 돌변 악기상과 착빙, 저고도 난류, 일출 직전의 농무 등이 항공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많은 눈은 통신과 전기 시설의 파손과 눈사태 및 건축물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파와 건조한 공기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독감이나 동상의 만연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시작도 좋으면 끝도 좋다고 한다. 올해의 출발점인 1월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선물



새해 첫 새벽.

그 남자는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해도 떠오르지 않은 어두운 길로 나선 것은 오래 전에 살았던 셋집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전 남자와 아내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유독 힘들었던 한해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래 전의 추억들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첫 아이를

낳고 힘들던 그 셋방살이를

이야기하다가 아내는 기어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 남자대로 현실이 너무 버겁던 시절이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셋방살이의 서러움을 깊이 느끼던 시절이었지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세상에서 홀로 힘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던 남편. 빨래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했고, 아이가 우는 것도 눈치가 보였던 아내. 그 무렵 부부의 가장 큰 소망은 맘껏 빨래를 하고 맘껏 아이가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그 남자와 아내는 집의 곳곳을 쓸어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나간 날들의 서러움이 이제 과거형이 되었다는 감회 때문이었습니다.

울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집 한 칸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성공한 친구들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동지였지만, 내 집에 대한 소망이 컸던 부부에게는 그 어느 저택이 부럽지 않은

공간이었지요.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그 남자와 아내는 집의 곳곳을 쓸어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집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나간 날들의 서러움이 이제 과거형이 되었다는 감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한옥이었지만 자신들이 내일의 꿈을 키우면서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빨던 그 집을 생각하다가 문득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말이야, 새해 첫 날에 그 집에 가보자.”

아내는 남편의 느닷없는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말했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거야.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낯선 사람,  
먼저 그곳에 살았던 사람으로부터 편지와  
선물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 아마 받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일이 될 것 같지 않아?”

그 남자와 아내는 시장에 가서 얇으면서도  
따뜻한 이불을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느닷없는 일에 놀라셨지요? 저희는 앞서 이  
집에 살았던 부부입니다. 그 집에 사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나오니, 가장 그리운 것이 그 집에서  
가난하지만 따뜻하게 살았던 기억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더니  
떠나오니까 가장 그리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느낀 절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의 절망이 또한 우리를 키운 힘이었음을  
느낍니다. 저희와는 다른 느낌으로 그 집에서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먼저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족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많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집에 돌아와서 이  
이불을 덮으면 세상의 어느 곳보다 따뜻한 이불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작은 소망이기도  
했으니까요. 부디 새해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웃으로부터-’

어둠 속에서 그 집이 보였습니다. 오래 살았던  
집은 어둠 속에서도 마치 환하게 불을 켜  
집처럼 그렇게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준 선물이기도 하겠지요.  
새해 첫날, 옛집을 찾아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불 한 채를 넣어두고 오면서 그  
남자와 아내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이불 한  
채는 그 남자와 아내에게 더욱 따뜻한 이불로  
평생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

방송작가 김미라



#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이모저모

공군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연중 최대 규모로 조종사들의 공중 전투 기량을 평가하는 '98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를 개최하여 일격 필추의 전투 기량을 선보임으로써 완벽한 영공 방위 임무 태세를 재확인하였다.



##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기량

1960년부터 실시되어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는 F-86 제트기가 최초로 국제사격대회(Flying Brothers)에 참가한 이래 KF-16 등 한국 공군의 최첨단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공군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여 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고난도의 정밀 공중 사격 능력 또한 향상되어 왔다.

이달에 만난  
사람

## “일격필추의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었지요”

'98 TOP GUN 성 재 용 대위

하늘의 전사 조종사로서 한 번쯤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TOP GUN이 아닐까 싶다. 바로 그 빛나는 영예의 자리에 17전비 152대대의 성재용(成在庸) 대위(29세·공사 41기)가 최연소로 TOP GUN에 등극하였다.

'98년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10. 15~27)에 F-4E 팬텀으로 처녀 출전하여 전술 사격 1000점 만점에 883.3점을, 공중 요격 1500점 만점에 1470점이라는

탁월한 사격 기량을 발휘한 성대위는 수상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조종사에게는 TOP GUN이 최고의 영광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목표가 아니다. 우리 전투조종사들은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침공하는 적기를 일격에 격추시키고, 적의 대공포화를 뚫고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며 “따라서 TOP GUN으로 선발되었다는 명예보다는 언제 어떠한 형태로 적이 도발해 오더라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는 미래전에 대비하여 새로운 전술 교리를 개발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하여 전투 조종사들의 공중 전투 기량을 평가하는 대회로서 공군 작전사령부 주관 하에 실시되며, 공대지 사격(전술·일반·야간 사격)과 공대공 사격(공중 요격·공중 사격) 능력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전술 사격이란 적의 대공 화력을 피하여 초저고도로 침투하여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사격은 시속 900km의 초고속으로 비행하여 4km의 상공에서 목표물을 정밀 폭격하는 것, 야간 사격은 무월광(無月光) 하의 철곡 같은 어둠을 뚫고 야간 정밀 폭격 장비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것, 공대공 사격은 공중에서 적기를 일격에 격추시키는 것을 말한다.

### 조종사들의 전투 기량과 전술 개발에 중점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의 목적은 첫째, 제공권 장악을 위해 조종사들의 공중 전투 기량을 총 평가함으로써 평소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전쟁 수행 능력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조종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

대회 기간중 총 340여 회에 이르는 출격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공군 전체 40% 수준에 이르는 조종사와 정비·무장사를 비롯한 비행 지원 요원이 참여하는 등 공군 최대의 규모로 대회로 치러졌다.



도 즉각 응징하여 일격에 격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TOP GUN의 영광을 대대장 이하 전 동료 조종사와 정비사, 무장사, 그리고 관제사 등 후방 지원 요원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 기본에 충실한 준비와 철저한 훈련

성대위는 사격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일 사격이 끝나면 GUN FILM과 사격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 사격 시 수정 사항을 요약하고 실제 적용해 가면서 수정량을 줄여나갔다면서, 특히 기본에 충실한 계획적인 준비와 치밀한 훈련을 했다고 한다.

또한 성대위는 동료 조종사와 지상 요원 등 어느 누구라도 허점이 생기면 항공기는 이륙 후 다시는 지상을 밟을 수 없게 되며, 완벽한 팀워크만이 최상의 비행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용 홍 근

최상의 비행 요건은 '완벽한 팀워크'에서

행 기량을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 적용한 후 조종사의 능력, 항공기 성능 등을 고려한 세밀한 분석과 보완으로 조종사 기량 향상과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며, 최대의 전투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종사와 정비·무장사, 관제사 등이 혼연일체가 된 협동 정신, 그리고 희생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를 재확인하여 전우애와 협동심 고취 및 사기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 조종사의 자긍심·사명감·사기를 크게 높여

이번 대회는 종전에 대통령상이 2개 부문(F-5 기종 가운데 최우수 1개 대대, F-16과 F-4 기종 가운데 최우수 1개 대대 선발)에서 시상되었으나, 98년부터는 (K)F-16, F-4, F-5 등 기종별로 최우수 1개 대대씩을 선정, 3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시상하게 되었다.

특히 종전 국방부 장관상이던 TOP GUN 시상 훈격을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켜 개인에게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이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공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써 조종사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은 물론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도 전반기 승공작전 시상식

참가 전력은 우리 나라에서 자체 생산중인 KF-16 항공기를 포함한 F-16, F-4, F-5, A-37 기 등 공군에서 운영하는 전 기종의 전투기가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 기간중 총 340여 회에 이르는 출격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공군 전체 40% 수준에 이르는 조종사와 정비·무장사를 비롯한 비행 지원 요원이 참여하는 등 공군 최대의 규모로 대회로 치러졌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KF-16 전투기 2개 대대가 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참가하여 짧은 훈련 기간과 신설 대대라는 상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참가 기종 가운데 최고의 전투 능력을 선보여 KF-16의 우수한 성능과 전투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

편집실



# 조종사로서 맛본 승리의 기쁨

“군인은 사기를 먹으며 명예를 위해 산다.”고  
흑자들은 말한다. 특히 군인 중에서도 조종사  
라 함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서 항시 전선  
없는 전선에서 최일선을 맡고 있는 전투 요원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예 걸고 필승 다지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지금의 나 역시 한 차원 높은 활동 공간에서  
새와 같이 난다는 기쁨 때문에 비행에 임하고



있으며, 표현할 수 없는 비행의 마력이 조종  
간을 10여 년 동안이나 한 순간도 놓을 수 없  
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  
만 이러한 비행의 멋과 같이 펼쳐버릴 수 없  
는 것이 바로 영공 수호라는 막중하고도 신성  
한 임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

지난달 긴장과 초조 속에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를 마쳤고, 올해의  
영광을 우리 대대에서 이뤄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승리의 감격  
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속일 것이다. 이러한 영공 수호는 전 · 평시가 따로 없겠지만  
생과 사를 전제로 한 전시와는 달리 평시는 실전적 전투 훈련  
을 통해 전술 · 전기를 연마하고, 이러한 평시 전투 비행 훈련  
을 총괄하며 보국(保國)의 검(劍)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보라매 공중사격대회'가 아닌가 싶다.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공군의 각 전투 비행 대대에서 기라성  
같은 조종사들이 모여 대대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실력을 유  
감없이 발휘하는, 아마도 전시를 방불케 하는 필승을 위한 경  
연장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공대지 사격, 공중 요격, 야간  
폭격 등 각 대대별로 한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평가하는  
대회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 한순간의 실수는 곧 실전에서의 죽음

그러나 사실 F-5기로는 이렇게 격렬한 경쟁의 장에서 견디어





내야 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대지 사격중 대부분의 폭탄을 자유낙하로 투하하기 때문에 가변 요소가 너무나 많았다. 그날의 바람은 어떻게 불어올 것인가? 또 온도는 몇 도나 될까? 물론 얼마만큼 투하 가변 요소를 최대한 줄이느냐 하는 조종 기량이 관건이겠지만 실제 거리상으로 약 4Km 밖에서 조그마한 섯덩어리를 집어던지듯이 하여 정확한 명중을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중 요격 또한 마찬가지로 긴장과 초조함은 공대지 사격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공중 요격은 공대지 사격과는 달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순간 한순간을 놓칠 수 없을 뿐더러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수란, 즉 엄청난 감점 요소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실전이라면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중 요격은 그 중요성이 참가 조종사로 하여금 더욱 긴장감에 젖게 만든다.

### 대대의 승리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작품

지난달 긴장과 초조 속에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를 마쳤고, 올해의 영광을 우리 대대에서 이뤄 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승리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쌍도끼 대대가 공군에서 최고의 대대가 되었구나!" 무엇보다 기쁜 것은 편대장으로서 편대원과 함께 비행 안전과 더불어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며, 나 혼자만이 아닌 편대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밀어주고 끌어주었던 사실이 정말 하나의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 싶다.

우리 대대뿐만 아니라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수고한 선배님, 후배 여러분과 모든 조종사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군 조종사는 항상 ACE라는 자부심을 갖고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말은 바 소임 완수에 가일층 진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

16전비 202비행대대 소령 지 용 해

## 근접 항공 지원 작전과 전자전

기동성이 현저하게 증가된 현대전에서는 다수의 표적이 존재하는 관계로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세적이며 대량으로 운영된다.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은 우군과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함으로써 지·해상군을 지원하는 작전이다.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은 우군이 취하는 공격, 반격 또는 방어 작전에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여 지·해상군의 군사 목표 달성과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유도 무기 중심의 근접 항공 지원 작전

모든 근접 항공 지원은 우군과 근접해 있는 적 지역의 표적에 대하여 수행되므로 지·해상군의 화력 및 기동 계획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하며, 우군에 대한 오폭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은 근접해 있는 우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군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밀 유도 무기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야간 및 악천후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유도 무기 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은 공격 작전 지원, 전과 확대 작전 지원, 방어 작전 지원, 특수작전 지원 등의 형태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되어진다. 기동성이 현저하게 증가된 현대전에서는 다수의 표적이 존재하는 관계로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세적이며 대량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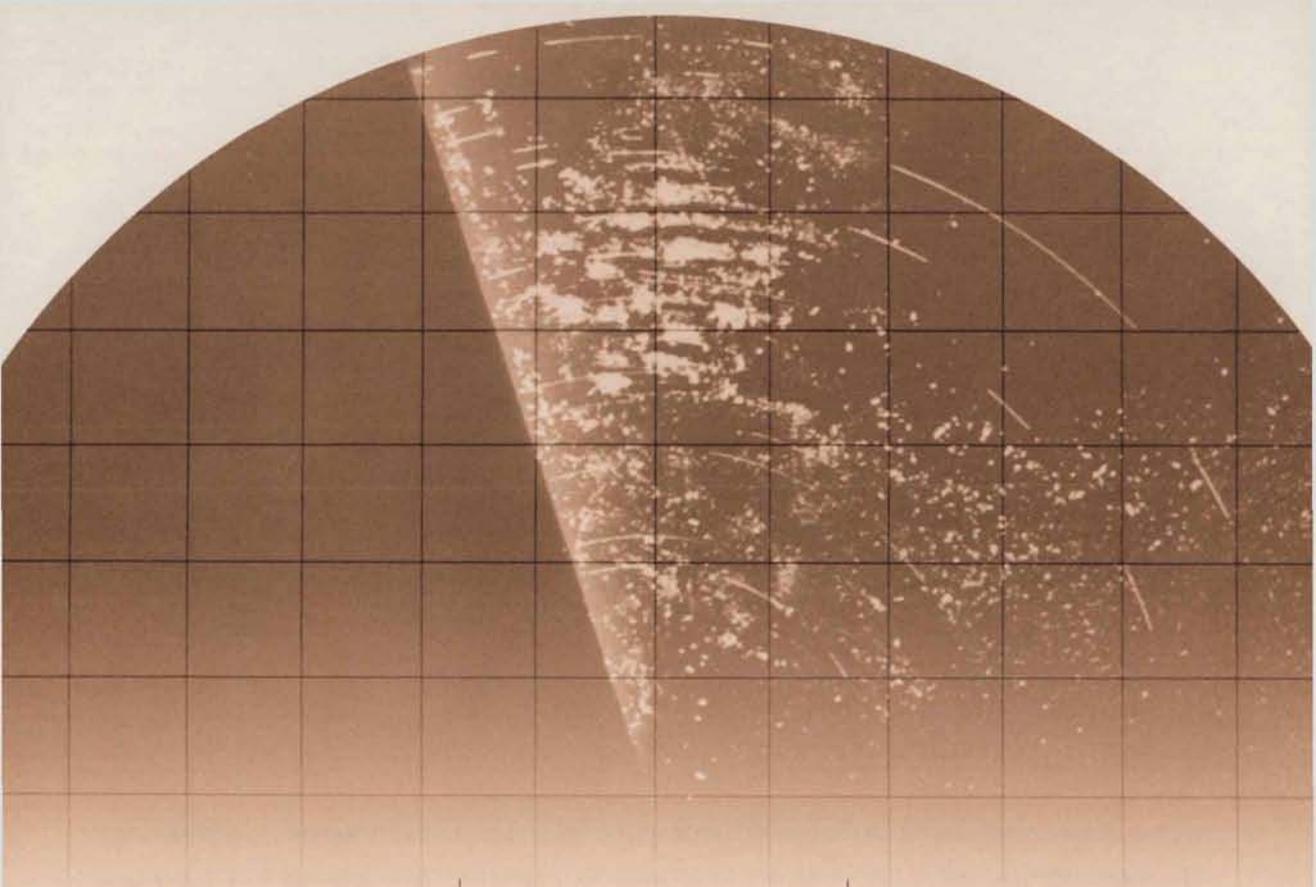
###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의 임무 형태

근접 항공 지원 작전 임무 형태는 우군 지·해상군의 요청에 의해 항공력을 이용하여 적 병력 집결지, 전차, 차량, 탄약고 등 지상 표적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는 공중 강타, 공중 정찰을 수행하면서 우군 지·해상 전력의 이동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엄호하는 종대 엄호와 공중

우세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헬리콥터, 공중 기동 부대 항공기 등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공중 엄호가 있다. 항공력은 전쟁의 Can Opener로서 지·해상군 공격 작전은 물론 전쟁 전체 과정에서 승패의 주된 요소로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통하여 우군의 기동 또는 반격 여건을 조성하고, 우군의 측면을 보호하며, 철수 또는 후퇴 작전시 우군의 후방을 보호한다. 그러나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장 지역의 공중 우세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중 우세가 확보될 때까지는 공중 우세와 무관한 작전은 전력을 분산시키는 것으로서 수행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전자기 및 지향성 에너지 이용한 '전자전'

전자전은 적의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자기 및 지항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반 군사 활동으로서 전자 공격(EA), 전자 보호(EP), 전자전 지원(ES)으로 구분된다.

전자 공격은 적 전투 능력을 저하, 무력화 및 파괴시키기 위하여 적의 인원, 장비, 시설에 대하여 전자기 또는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는 활동으로, 여기에는 전파 방해 및 전자기만과 같은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적 스펙트럼의 효과적인 사용을 방해 또는 저하시키는 행위와 레이저, 고출력 무선 주파수, 입자빔 등 전자기 또는 지항성 에너지 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전투 능력을 무력화 및 파괴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전자 공격의 형태는 대방사 미사일(ARM) 및 직접 에너지 등에 의한

치명, 그리고 전파 방해 및 전자기만 등 비치명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 보호는 아군 또는 적의 전자전 운용에 의해 전투 능력이 저하, 무력화 또는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아군의 인원,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제반 활동이다.

### 전자전은 현대전의 필수 요소

전자전 지원은 작전 지휘관이 상부의 위임이나 직접 통제하에 즉각적인 적 위협 요소의 탐지를 목적으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방사되고 있는 전자 에너지를 탐색, 감청, 식별 및 출처의 탐지를 위하여 취해지는 제반 활동이다. 따라서 전자전 지원은 전자전 수행과 관련된 즉각적인 결심 그리고 위협 식별, 위협 회피, 표적 개발 등 기타

전술 행동에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과 전술적 위치 탐지, 전술적 위협 경도가 포함된다.

전자전 능력의 구비는 현대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전자전과 다른 작전과의 혼합 활용을 통하여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전반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전자전을 통하여 적의 지휘 및 통제 체제를 파괴 또는 마비시키고 우군 피해를 감소시키며 공격 효과를 극대화하여 유리한 전장 상황을 조성한다. ⚡

###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 전자 공격(EA), 전자 보호(EP), 전자전 지원(ES) 등 용어는 기존에 사용된 전자 방해책(ECM), 전자 방해 방어책(ECCM), 전자전 지원책(ESM)의 변경된 용어로 전자전과 지휘 통제권을 단순한 대응책 또는 방책이라는 전술적 개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임.

초기 항공 전략 사상가(3) 항공력의 십자군 용사 빌리미첼

##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그는 미국의 항공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여론을 상대로 항공 전략 사상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당시 권력층에 있는 보수 세력과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현재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원동력이 된 미 공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냉소적인 세상에서 과거의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빌리 미첼(Billy Mitchell, 1879~1936)의 이름을 회상하는 것에 대해 관련성, 정확성 및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약 80년 전에 미 공군력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고 70년 전에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 상징적인 의미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또한 그러한 상징이 정확한 것일까? 미첼은 실제로 미래를 예측했었던 것인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의 전성기 이후의 시간과 발생한 사건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개혁을 생각해 볼 때 미첼의 행동과 말은 오늘날의 공군에게 있어 유용한 것일까?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 미 공군은 "Yes!" 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미첼이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 세계 최강인 오늘날의 미 공군의 기틀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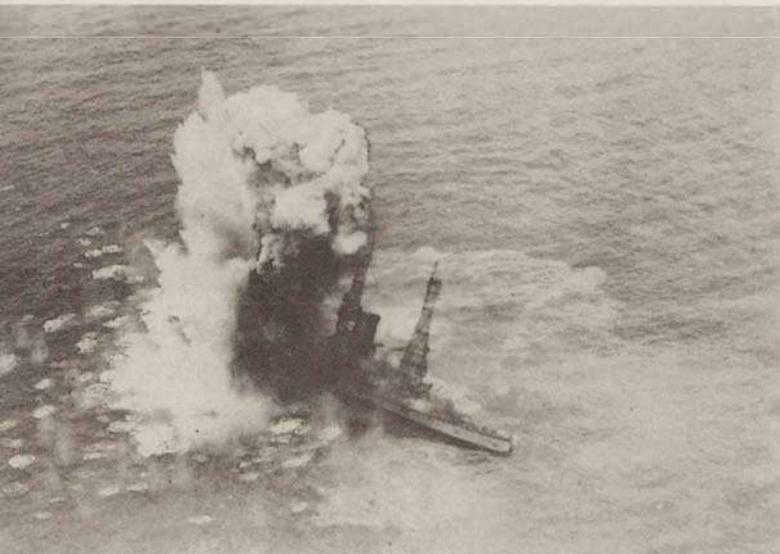
### “미래를 위한 대비는 항공기의 이용”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첼이 가지고 있던 미래 군용 항공기에 대한 생각은 미국의 방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미첼의 관심은 바다로부터의 공격에 대하여 미국의 해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영구적인 문제에 돌려졌다. 미첼이 결정한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방위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미첼은 자신이 직접 몸담았던 미 육군과 해군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하였다.

1921년 버지니아에서 옛 독일 군함에 대한 항공단의 폭격 실험을 실시하였다. 미첼은 항공단의 폭격에 의해 전함을 침몰시킨 후, 구축함과 순양함의 성공적인 폭격과 '불가침'의 오스트프리스랜



빌리 미첼



명되었다. 미첼이 놓친 점은 단지 항공모함에 대한 평가절하였다.

### 미첼리즘, 공군력은 육·해군력의 상위

미첼은 미국 항공계의 개척자이며 항공력의 십자군 용사로서 그리고 항공 사상의 가장 중요한 대변자로 추앙받고 있다. 짧은 군 경력 동안에도 미첼은 새로운 경로를 채택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웠으며 후대의 주요 지휘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미첼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을 제안했을 때 그는 20년

드(Ostfriesland) 호의 파괴 실험을 보여주었다. 또한 낡은 전투함인 알라바마(Alabama) 호에 대한 폭격을 실행함으로써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1923년에는 버지니아와 뉴저지에 대한 공격으로 해군을 당황스럽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군은 항공모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항공력을 무시하였던 미 행정부는 미첼을 점차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를 텍사스 샘기지의 항공 장교로 좌천시켜 버렸다. 1925년 해군 해상기와 비행선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미첼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일련의 사고는 육군성과 해군성의 무능, 범죄적 무관심, 그리고 국가 방위에 반역적인 행정부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이 발언으로 미첼은 군법회의에 올려지게 되었고, 결국 1926년 군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당시 미첼은 태평양에서 항공력을 통한 미국의 전략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의 공격에 대한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시간과 지역 그리고 공습에 의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선이 무너졌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어적 혹은 공격적 행동에서 항공력의 영향은 의미가 큰 평가였고 본질적으로 옳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제공권은 모든 태평양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증

이상 앞서 있었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첼이 다가올 위험에 대한 해답이 공군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미국의 항공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여론을 상대로 항공 전략 사상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당시 권력층에 있는 보수 세력과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현재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원동력이 된 미 공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미첼이 육군성, 해군성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언론은 “공군력이 현재의 지배적인 군사 요소이고 육군 및 해군은 그 아래에 있다.”는 그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미첼리즘(Mitchellism)’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사고에 대한 확신, 예측의 정확성 그리고 그가 기꺼이 감수한 위기와 희생은 공군력의 발전을 이끌어내었고, 우리 공군인들은 미첼리즘에 새롭고, 더 차원 높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시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핵심 중심부에 신속하게 도달하여 그 목표들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항공력의 도래는 과거의 전쟁 수행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양상을 가져왔다. 이제 전쟁터에 있는 적의 주력 육군부대는 일시적인 목표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핵심 중심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William Mitchell, Skyways, 1930) 

(다음호에 계속)

전투발진단 전쟁연구실

## 환경을 살리는 운전 습관



### 아직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십니까?

승용차의 경우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합니다. 요즘 차는 전자 제어가 되므로 2분 이상 주·정차시에는 시동을 끄도록 합시다.

버스 등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최초 시동시 겨울철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은 불필요하며, 3분 이상 주·정차시에는 시동을 끄도록 합시다. 이것은 대형이나 소형, 경유차 등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10분간 공회전을 한다면 승용차의 경우는 3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고, 경유차의 경우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더 소모되며, 오존과 매연 등이 두 배 더 배출됩니다.

### 환경을 살리는 올바른 운전 습관

5천km마다 정비·점검하는 것을 생활화합시다. 또한 엔진 오일 교환은 1만km마다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정비와 점검은 연료를 10% 절감시켜 주며, 오염 물질을 약 5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급출발, 급제동 등의 난폭 운전은 정상 주행시보다 30% 이상의 연료를 낭비하게 하며, 매연의 과다 배출 및 차량 수명 단축 등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거나 과적, 과속에 의한 무리한 부하는 두 배 이상의 매연을 배출시킵니다. 또, 타이어 공기압의 부족은 연료의 과다 소비 및 매연 배출의 원인이 됩니다.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 우리가 되찾아야 할 하늘이며 지켜야 할 재산임을 잊지 맙시다. ♣

글/ 공군본부 환경과

## 21세기 정예 공군, 이렇게 육성된다

### 정예 공군력 건설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교육 훈련 정책 발전 방향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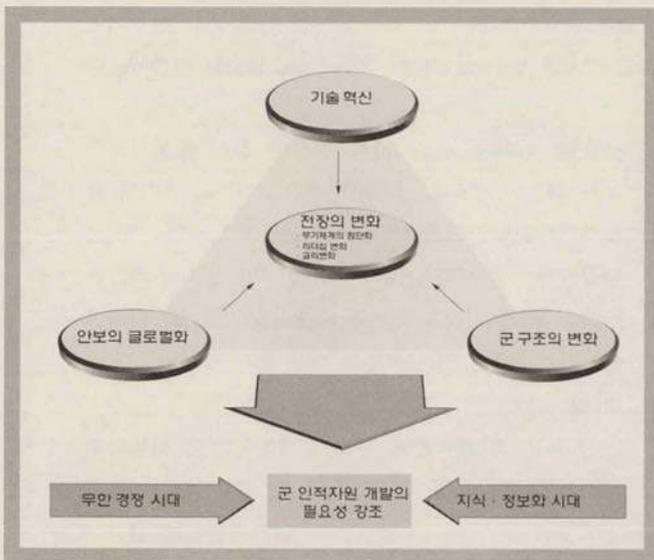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관심은 고대 플라톤의 강력한 국가와 군을 건설하기 위한 엘리트 교육의 중요성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략, 전술 중심의 군사 전문성과 과학 기술 분야 발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군 조직의 전문화와 함께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공군도 정예 공군인 육성의 당위성을 보편적 가치로 인식하여 정예 공군인 육성을 위한 과정(Process) 및 수단(Method)으로서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도출하였다.

### 유형별 전문성 계발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해야

미래의 정예 공군력 건설과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산업 사회에서와는 달리 국방 분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인력 자원의 질적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 유형별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교 위주의 전문성 계발 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는 업무의 대부분이 현역 그것도 장교들에 의해 수행되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미래 사회에서는 산업 사회  
에서와는 달리 국방 분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  
심적인 요소가 인력 자원의  
질적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국방 분야 업무는 장교만으로는 수행되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교로만 수행해서도 안되는 구조를 가질 것이다. 즉, 고도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명확한 업무의 분담과 상호 협조 체계 구축이 없이는 국방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국방 업무는 장교와 하사관으로 구성되는 현역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력(군무원) 등 다양한 집단의 협력을 통해서 수행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공군은 전문 인력 육성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상당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첨단 무기 체계를 다루고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 대 상     | 과 정                              | 자격 조건   | 선 발 시 기       |           |
|---------|----------------------------------|---|---------------|-----------|
| 장 교     | 위탁 교육                            | 박사·석사<br>(국내·국외)                                  | X-1년 5월중      |           |
|         |                                  | 학사(국내)  |               |           |
|         | 자질 향상 교육                         | 아간대학  | • 중령 이하       | X-1년 12월중 |
|         |                                  | 아간 대학원(석사)  |               |           |
|         | 국외 지휘참모대<br>(국대원, AWC, CSC, SOC) | • 국대원, AWC:대령(조종)<br>• CSC:소령(조종)<br>• SOC:대위(조종) | X-2년 12월중     |           |
| 국대원(석사) | • 소령 이하                          | X-1년 12월중   |               |           |
| 군과원(석사) |                                  |   |               |           |
| 하사관     | 자질 향상 교육                         | 주간 전문대  | X-1년 11월중     |           |
|         |                                  | 아간 전문대  |               |           |
|         |                                  | 아간 대학원  |               |           |
| 군무원     | 국대원, 군과원(석사)                     | • 학위 소지자(5급 이상)                                   | X-1년 12월중     |           |
|         | SOC(공대)                          | • 5급 이상   | 년 4 회         |           |
|         | 군무원 관리자                          |   | 년 1 회         |           |
| 기 타     | 국내 실무연수                          | • 업무관련 실무자(장교, 하사관, 군무원)                          | X년 3월(분야별 추천) |           |



군 육성을 위해 장교 집단에서부터 하사관, 군무원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교육 과정의 다양화로 분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 충분한 교육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능력 제고를 위한 기회 of 장을 최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기 교육 과정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우선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수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문적 능력을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전문 인력 육성 필요성에도 언급하였듯이 전문 인력의 육성은 군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며,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 기대는 군 조직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공군은 정예 공군인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기회의 문호를 항상 개방하고 있다. Ⓡ

공군본부 일반교육과 중령 이근재

### 선발시험 하한점수

| 과 정<br>구 분 | 국내 학위 |     |     | 국외 학위 |     | 국외지휘  | 비 고         |
|------------|-------|-----|-----|-------|-----|-------|-------------|
|            | 박사    | 석사  | 학사  | 박사    | 석사  | 참 모 대 |             |
| TOEFL      | 520   | 490 | 470 | 530   | 520 |       |             |
| 전공         |       | 40  | 40  |       |     | 60/50 | • 영어/해당국어   |
| ECL        |       |     |     |       |     | 80/70 | • 영어권/제2국어권 |

### 선발 배점 비율

| 항 목 | 지 휘<br>추 천  | 시험성적 |     | 선 행<br>성 적 | 분 야<br>심 의 | 중 앙<br>심 의 | 계   |
|-----|-------------|------|-----|------------|------------|------------|-----|
|     |             | 어 학  | 전 공 |            |            |            |     |
| 배 점 | 박 사         | 25   | 50  | 10         | 5          | 10         | 100 |
|     | 석 · 학사      | 25   | 25  | 25         | 10         | 5          | 100 |
|     | 국외지휘<br>참모대 | 45   | 20  | 20         | 5          | 10         | 100 |
|     | 국대원<br>군과원  | 55   |     |            | 30         | 5          | 100 |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교훈감실로 연락 바람(효-1351~3)

## 1월의 공군 약사

1. 1 공군참모총장 계급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조정('69)
1. 9 C-130 수송기 도입('88)
1. 10 공군본부 서울로 복귀('55)
1. 11 김두만 소령 공군 최초의 F-51 전투기 100회 출격 기록 수립('51)
1. 12 북괴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 발생('68)
1. 14 육군 항공사관학교 창설('49)
1. 15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52)
1. 17 중앙항로 교통관제소(ARTCC) 미군으로부터 인수('58)
1. 17 S-2A 해상 초계기 해군으로 이관('76)
1. 21 비둘기 공수 작전의 성공적 완수('91)
1. 21 CN-235 중형 수송기 도입('94)
1. 24 제주도 공비 토벌 작전 참가('49)

## 1. 9 C-130 수송기 도입('88)

현대전에서의 공수 작전이 야전군 재보급과 대형 전투 장비의 공수 능력을 필요로 함에 따라 공군은 전·평시 공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C-130 대형 수송기를 도입하였다. 이 수송기는 걸프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한국 공군 수송단(비마부대)의 주력기로서 공수 작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여 전쟁 승리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 1. 15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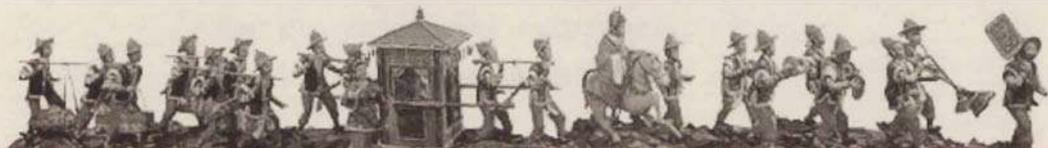
한국 전쟁시 중동부 전선으로 많은 보급 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승호리 철교의 중요성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자 미 공군은 500회 이상 비행 출격하였으나 차단에 실패한 뒤 한국 공군에 임무를 넘겼다. 이 임무를 인수한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2년 1월 12일 F-51 전투기 2개 편대(8대)로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자 초저공 공격 방법을 결정하고, 1월 15일 2개 편대(F-51 6대)를 출격시켜 철도 차단에 성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0전대장 김신 대령은 미 공군으로부터 축하의 악수 세례를 받았다.

승호리 철교 차단 성공은 한국 공군의 명예를 걸고 기필코 작전에 성공하고 말겠다는 전투 조종사들의 감투 정신에 따른 한국 공군 전사(戰史)에 빛나는 업적이었다.



목만호 전참모총장  
(작전 당시 2번대장/대위)

# 대만, 그곳에 '순수'가 있다



나는 지금 도자기로 만들어진 용(龍)의 형상을 보고 있다. 이 용상은 대만의 삼군대학을 졸업할 때 동기생들이 내가 군문에 몸담고 있는 동안 항상 상송하기를 기원하고, 대만이라는 작은 나라를 결코 잊지 말아 달라면서 건네준 뜻깊은 선물이다.

## 합리주의적 동양인, 그들만의 또 다른 인간 문화

대만에 사는 중국인 대부분은 중국 공통어인 북경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만의 언어인 태어(台語)를 구사하기도 한다. 한국의 문화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전승되고 옛 학문 역시 중국의 것을 들여와 그대로 답습했던 우리로서는 대만인을 접하고 얘기하면서 과연 이들이 동양인이고 또한 중국인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대만인은 동양인이되 그들의 사고는 합리주의 그 이상이다. 철저한 개인주의,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랜 교분을 쌓았더라도 철저히 배척하는 또 다른 인간 문화를 그들은 만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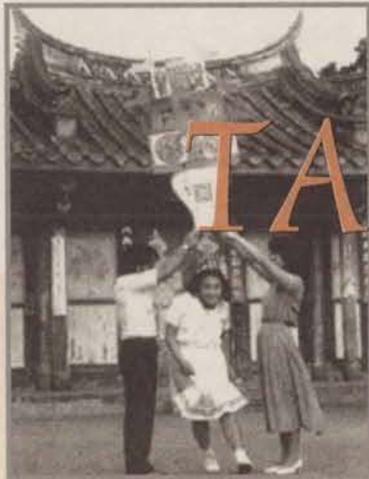
또 하나는 남녀노소, 직위 고하간 대화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대화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다. 우리는 예의를 많이 따지느라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반면, 중국어에도 경어 및 존칭이 있음에도 대화의 수준은 격식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인이 무례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만인은 외국인(물론 내국인끼리도)에게 매우 친절하다. 길을 물어볼 때 그들 모두는 열심히 설명을 해준다.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이해가 되었냐고 되물어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준다. 결국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면 그들은 또한 “아무 문제 없다.”는 말로 도리어 외국인을 안정시키고 목적지까지 손수 데려다 줄 정도의 친절을 베푼다. 대만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국민성은 ‘순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삭막한 도시를 씻겨주는 친근한 자연

대만의 영토는 매우 작은 반면 인구는 대단히 많은 편이다. 최근 국가 및 가정 경제의 활황에 따라 국민의 욕구 팽창이 제일 먼저 자동차 문화로 돌출되었다.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 어떻게 보면 훨씬 우세할 정도의 급진장세를 보이고 있는 오토바이 문화, 이 두 문화는 대만내 거의 모든

철저한 개인주의,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랜 교분을 쌓았더라도 철저히 배척하는 또 다른 인간 문화를 그들은 만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 TAIWAN

도시 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모든 차도의 반은 자동차 주차장이요, 모든 인도의 반은 오토바이 주차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기 오염 역시 큰 문제이고 소음 공해 또한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대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는 문화 활동의 결과이고, 그 모든 것이 공유된 것이기 때문에 조급을 부리지 않는다. 편도 1차선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당장 지나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기다린다. 기다림과 인내는 그들의 기본 철학이다.

대만인들은 여유가 없는 그들의 도시 공간이지만, 시민 휴식을 위한 대단위 녹지 공원을 많이 조성해 놓았다. 결코 삭막할 수만은 없는 그들 스스

로를 위한 배려를 충분히 하였기에 도시라 할지라도 언제나 친근한 자연이 곁에 있는 것이다.

## 삼군대학 공군학원에서의 소중한 체험

대만이 비록 국제법상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제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대만은 국방력 건설에 막대한 재화를 투자하고 있으며, 주권을 침해당하는 순간이 오면 그들이 잘 키워온 선진 군사력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삼군대학 공군학원에서 1년간 수학한 나로서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다. 아울러 IMF의 어려운 시기에 외국에서 생활하며 대만의 문화를 배우고, 대만 공군 장교와 우정을 쌓으며 보낸 시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자산이 되었음을 확신한다.



18전비 소령 배진민

## 정예 공군인이 되자!

본지('98년 9. 10월)에서도 이미 소개한 바 있는 정예 공군인 육성 방안이 지난 연말 책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작년 4월, 21세기형 강한 공군 건설을 위해 정예 공군인 육성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2개월간의 연구 끝에 이루어낸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정예 공군인 육성 방안과 시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표에는 연구 방안의 근거 자료와 예문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또한 독자들은 이 책에서 정보화·과학화 사회로 대변되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공군인의 육성 방안, 그리고 이제까지 물적(物的) 발전에 치중했던 우리 공군이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엮음/205면/공군본부 발행

## BOOK

## 지식 혁명 보고서

현재 IMF의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그 누구도 한국의 일천한 지식 수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왜 같은 재료를 쓰고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도 미국의 포드나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벤츠와 같은 승용차를 만들지 못하는가.

이 책은 21세기의 우리 사회가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 사회로서의 변혁을 내다보면서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을 개선·개발·혁신하여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 근로자'로 탈바꿈하는 방법을 다양한 예시와 도표로써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발행사인 매일경제신문사는 국민, 기업, 정부가 지식인, 지식기업, 지식국가로, 한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거듭나기에 대한 열망으로 이 책을 출간했다고 한다.



매일경제 프로젝트팀 엮음/270면/매일경제신문사 발행/10,000원

## 어머니 이마에 새겨진 계급장

17전비 무장대대 병장 김 인 수

파랗란 하늘이 정상이어야 하는 추운 계절인데 시퍼런 먹구름만 그 자태를 뽐내며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간간히 보름달이 보이는데 너무도 밝고 곱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보름달과 같이 한참 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당신의 대명사가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나의 모습 때문일까요?

자대에 처음 와서 그 멧모르는 두려움과 진한 육체적 피로를 가끔 괜히 부끄러워했던 이유도 아마 그 나약한 모습 때문이었겠지요. 이병 때는 보이지 않는 군 생활의 깊이 에 좌절하고 한심한 나의 육체적 부족함을 느꼈다면 일병 때는 정신적인 나약함을 느꼈으니까요. 상병이 된 뒤에도 담배만 늘어가고 점점 더 단순하게 행동하는 나를 보며, 이래서는 안된다는 자제의 목소리로 당신을 아주 가끔씩 불러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급을 달았습니다. 얼마 전 집에 전화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너 생일이

내일이지? 내가 내일 아침에 미역국이랑 따신 밥 한 공기 차려놓을까. 우리 아들네미 생일인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시며 씩스러운 웃음을 지으셨지요. 그 목소리를 듣고 있던 이 아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젠 당신이 애처롭게 보입니다. 휴가 나갔을 때 당신께서 “이제 너도 고생 끝났구나! 이 어미도 한숨 났다.” 하며 나의 두 손을 잡을 때도, 새벽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여동생을 이제는 모른 척하시며 그냥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베개 밑에 살며시 두고 간 만원 짜리 지폐 몇 장을 부시시 일어나 보았을 때도, 귀영하는 날 예전부터 항상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하며 늘 하던 “몸조심해라!” 라는 말을 던지며 손을 흔들고 돌아서던 당신의 모습 속에서도, 어머니는 이제 예전같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시집을 때 그

하얀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한 만큼 당신의 속마음도 우리 3남매의 생각으로 검게 변하였던 것이고, 삼촌들과 우리들의 도시락을 하루에도 예닐곱 개를 싸시면서 고목같이 손이 거칠어져도 당신의 손에는 언제나 힘이 넘쳐 보였지요. 항상 강해 보이던 모습도 이젠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군 생활 하며 모자에 달았던 계급만큼 보다 더 많은 계급장이 당신의 이마에 선명히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열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이제 그만 잠재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많이 남지 않은 생활로 당신에게 보이는 행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당신에게 보이는 행복을 드리기 위해 시간을 아끼며 생활하고 현명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

(천성가족) 11월호 중에서

### 1. 복지단(태성대) 외래자숙박시설 이용 안내

태성복지관 건립에 따라 외래자 숙소를 개관하오니 재경 지역 출장, 교육, 파견 및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공군 장병, 군무원, 타군 장병, 예비역(타군 포함) 및 그 가족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장소는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복지단 태성복지회관 3층이며, 이용일 기준 5일 전부터 예약 접수 가능하고 당일 20시까지 직접 내방하거나 예약 확인을 하면 됩니다. (문의 : 태-6871~3, 02-810-6071~3)

### 2. '99년도 공군 장병 모집

공군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싶은 패기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구 분   | 모집 횟수   | 모집 시기     |
|-------|---------|-----------|
| 장교    | 사관생도    | 1회 8~9월   |
|       | 사관후보생   | 2회 5, 10월 |
|       | 조종장학생   | 1회 4월     |
|       | 학군사관후보생 | 1회 5월     |
| 하 사 관 | 3회      | 3, 7, 10월 |
| 병     | 10회     | 8, 12월 제외 |

(문의 : 효-1152, 02-506-1152)

### 3. 공군 평론 원고 모집

공군대학에서는 공군 평론 원고를 모집합니다. 원고 내용은 공군 운영 전반에 관한 논문, 항공 전략·전술 분야 및 항공 우주 과학 분야, 군사 정세 및 국제 정세 분야, 공군 교리 발전 및 공군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A4 용지 25매 내외)이며, 약력 및 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 바랍니다. (문의 : 자문대-4232, 042-870-4232)

### 4. 공군 도서기증 캠페인

공군사관학교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도들의 교육과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제고할 목적으로 각종 도서 자료를 기증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신 귀중한 도서 자료를 기증하시어 21세기 정예 사관생도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서 기증 캠페인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성무대-6084, 0431-229-6084)

※성실한 의견을 주셨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월호 당첨자는 공군사관학교 군악대 합선식 병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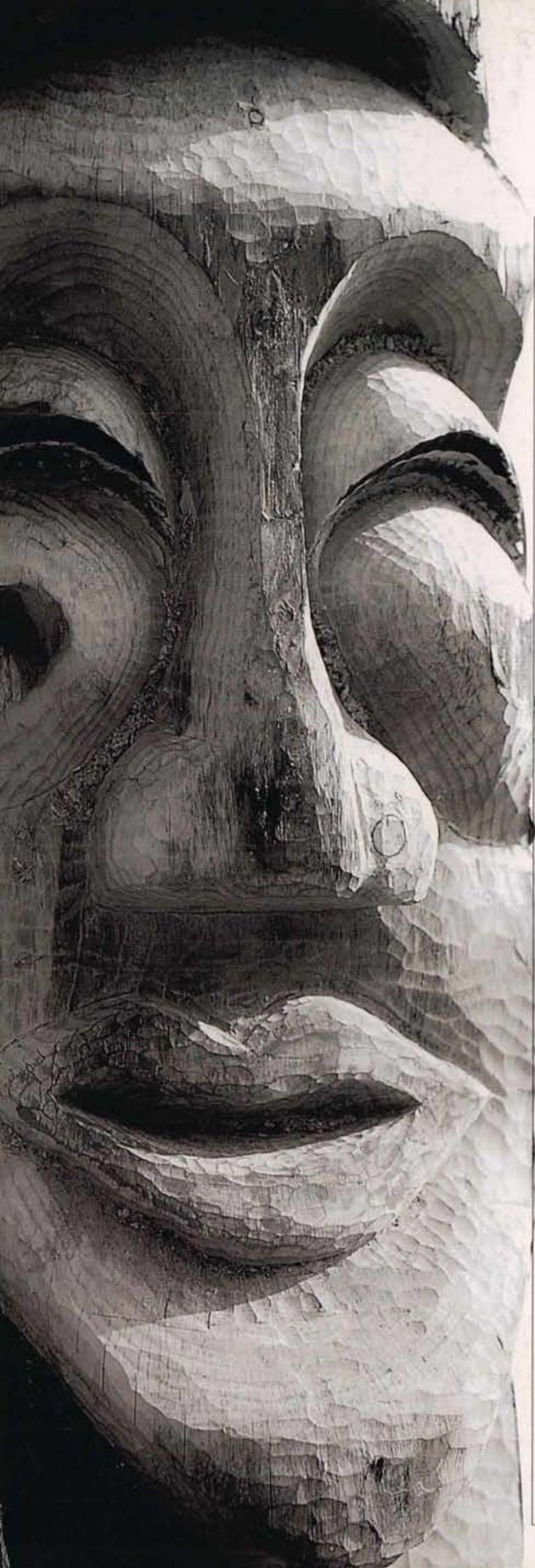


눈내린 방공 관제 사이트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날 때,  
내가 단단히 힘주어 근화끈을 묶을 때,  
내가 철모를 쓰고 군장을 둘러맬 때,  
내가 총을 들고 길과 하나되어 행군을 할 때,  
내가 동료와 함께 초소에 남아  
조국의 밤과 낮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사소하거나 사소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조국을 위한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보라, 하늘에는 구름 한 송이 피어 있다  
누가 그랬던가. 구름은  
하늘이 그 가슴에 피우는 장미꽃이라고  
지금 내 조국의 겨울 산하에는  
구름 닮은 장미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다  
아아. 그것은 내게  
너무도 눈부시고 찬란한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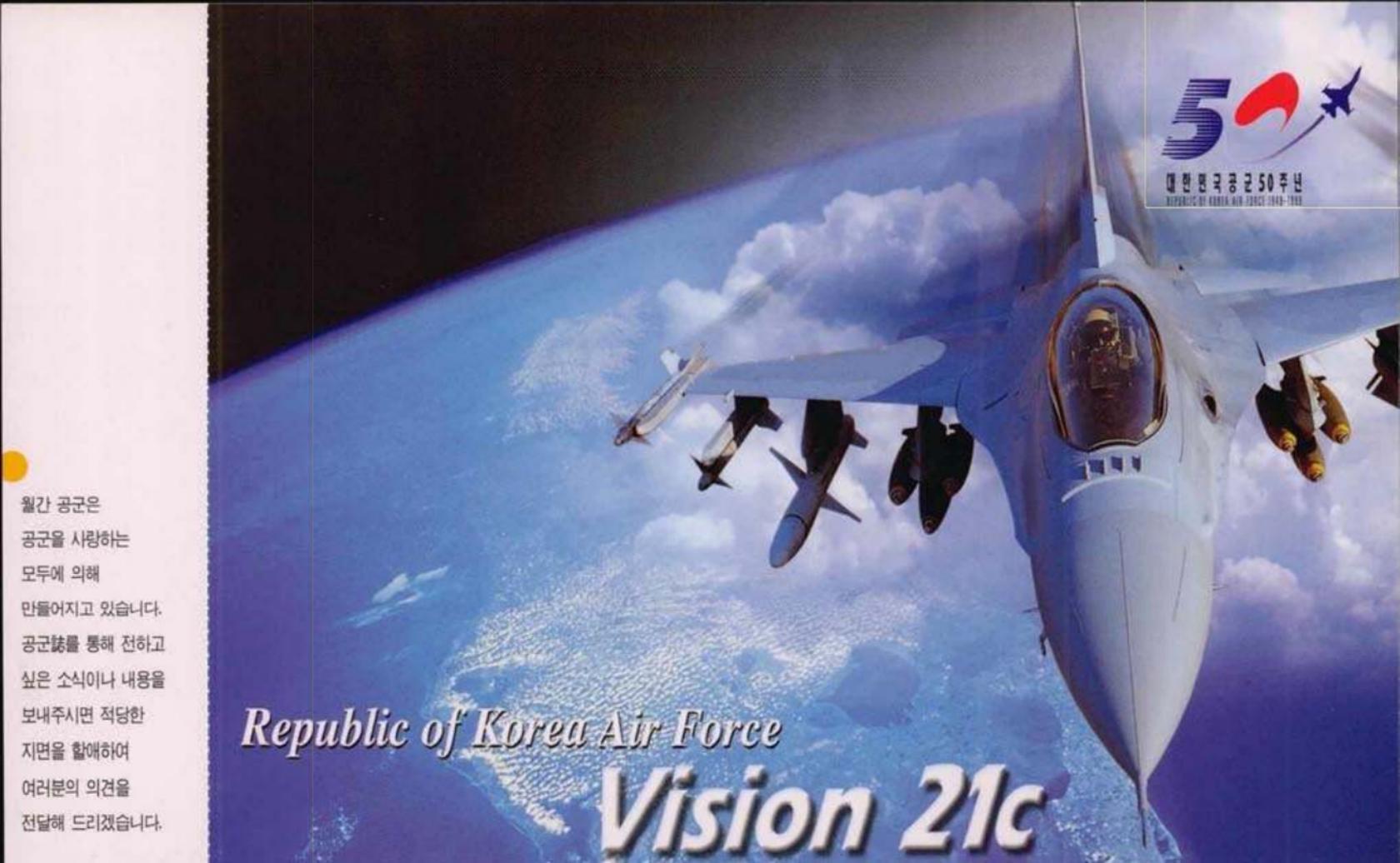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남보다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생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청빈의 화신이다. 또 진정으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서 생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을 살 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모자람이 아니고 충만이다.

욕심은 부릴 게 아니라 버릴 것이다. 버림으로써 영혼이 빛을 발한다. 내가 이렇게 가난을 강조하는 것은 공상떨면서 살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넘치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제정신을 차리고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옛 거울에 다시금 비춰 보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생활 방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배우며 익혀 가야 할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우리의 생활 규범이 되어야 한다.



50

대한민국 공군 창설 50주년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49-199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Republic of Korea Air Force*

**Vision 21c**

# 독자엽서

공군내  
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보내는 사람

이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수신: 참모총장

참조: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일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